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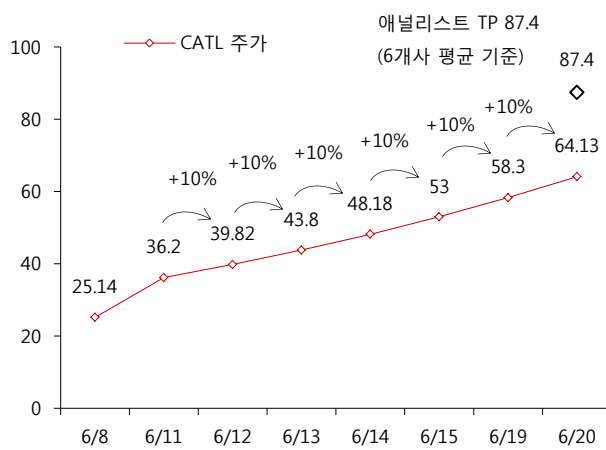
# Issue Comment

- ✓ CATL 상장 이후 지속적인 주가 상승
- ✓ 중국 친환경차 시장 성장과 1위 배터리업체라는 지위로 인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 ✓ 산업과 주가의 새로운 바로미터 등장. 지속적인 관심 필요

## CATL의 상장 의미 - 변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과 새로운 바로미터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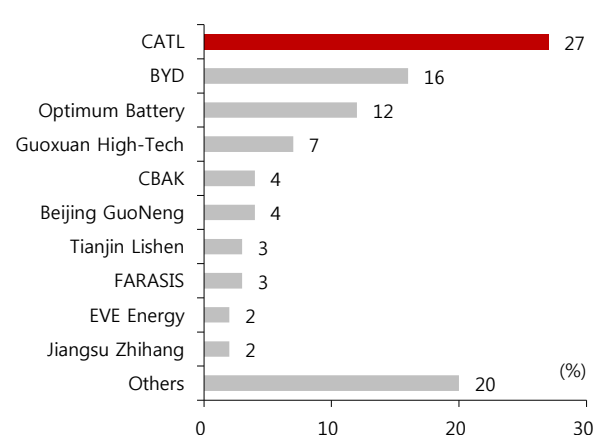
- 중국 배터리 업체인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 (이하 CATL) 6월 11일 선전거래소 창업판에 상장. 유동성 문제와 적정 P/E Multiple 및 조달 규모 규제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상장되었으나,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6월 20일 기준 공모가 대비 255.1%의 상승률 기록. 다소 높아보였던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주가인 87.4 위안에 근접
- 6월 20일 종가 기준 18년 예상 PE는 40.7배, PB는 4.3배 수준(19년 예상 PE 31.2배 / PB 3.8배, 20년 예상 PE 23.1배 / PB 3.4배). 높은 Valuation의 배경은 1)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 내에서 NEV의 비중이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과 2)17년 기준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27%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ATL의 지위. 즉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여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판단
- 실제로 CATL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17년 연간 17GWh에서 20년까지 88GWh로 확대 예상. 중국 정부에서는 다른 산업처럼 배터리 업체간의 합종연횡도 장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금조달과 현금 확보 이후 추가적인 M&A 및 투자 계획 발표 가능
- CATL 상장은 자동차업계의 새로운 바로미터 등장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 대비 상대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던 중국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중요. 중국 로컬 업체 뿐 아니라 독일업체(VW, BMW, Daimler)와 일본업체(도요타, نيسان, 혼다), 한국(현대차) 등 글로벌 업체에도 납품함에 따라 동사를 통해 주요 업체별 계획도 가능할 수 있음
- 주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판단. 기존 친환경차 테마의 주요 모멘텀이던 Tesla와 BYD 등의 업체는 완성차 생산 및 판매를 겸하고 있고 기존 관련 부품업체 또한 전통적인(Conventional) 사업의 비중이 컸음. 하지만 CATL은 완성차가 아닌 순수 부품사라는 점과 친환경차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차 테마에서 주요한 Valuation PEER이자 주가의 모멘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CATL 주가 추이 -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공모가 대비 255.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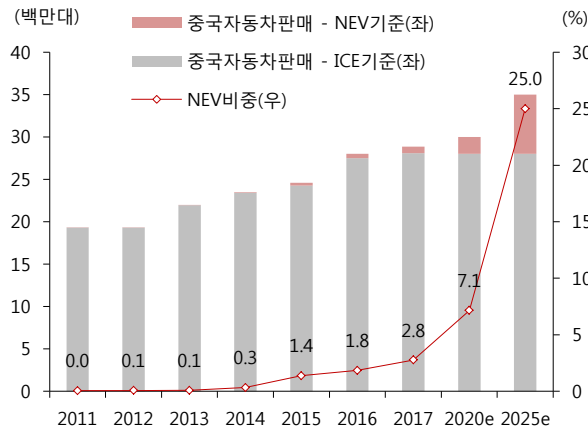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 2017년 기준 중국 NEV 배터리 시장 점유율 - 27%로 1위인 CA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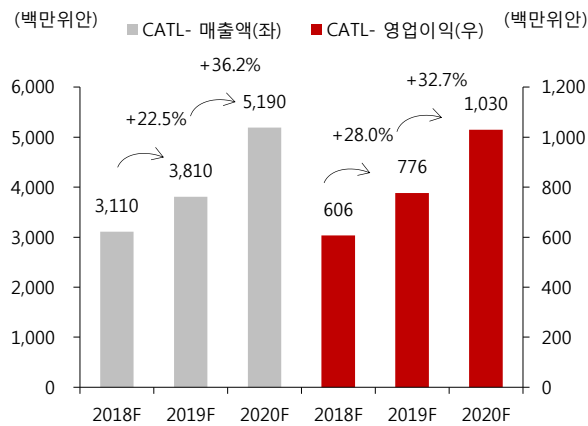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 중국 자동차판매 ICE/NEV 추이 - NEV 비중은 기하급수적 증가 예상



자료: Bloomberg, SK 증권

## CATL 실적전망 - 외형과 수익성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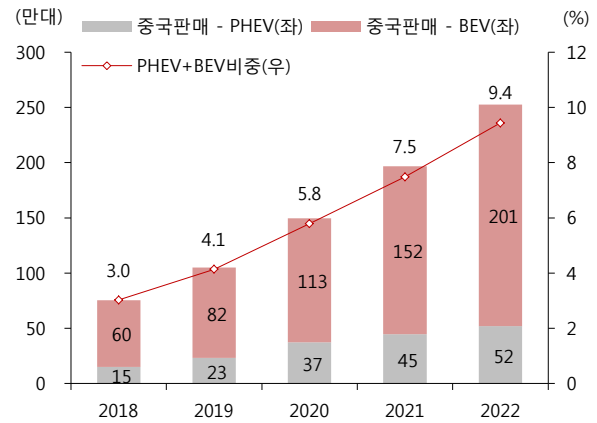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 CATL 납품업체 - 중국 로컬업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와 납품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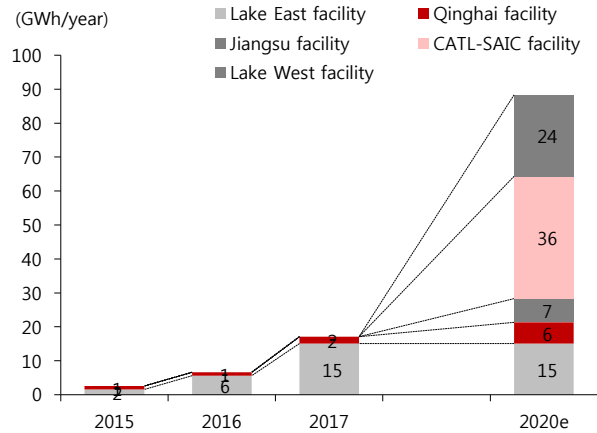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 중국 PHEV / BEV 판매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SK 증권

## CATL 배터리 증설 계획 - 2020년까지 88GWh 확대



자료: Bloomberg,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